# 민중정치시대 열어 갈 나팔수

**문화특집**

## 민중민주진영 문예패의 활동 방향과 사업기조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민중문예 진영은 민중대통령을 추대하고자 하는 자신의 칫걸음을 지난 10월12일 '민중대통령 문화예술인 선거대책본부'결성을 통하여 내딛게 되었다. 이제 민중대통령을 추대하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민중운동진영은 자신의 계획으로서 미래를 조망하여야 할 때이다. 이글은 학생문예진영이 대통령 선거시기 문예활동의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에서 제출하고자 한다.

**1. 백기완 선거운동본부의 문예활동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대통령 선거시기 모든 활동의 중심은 선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배치,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활동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제 11월1일 대회를 마치면서, 민중대통령 선거대책본부는 백기완 선거운동본부로 전화하게 될 것이다. 민중문화예술진영에서도 11월1일 대회를 중심으로, 이전의 '문화예술인 선거대책본부'의 문예역량을 중앙선거운동본부의 유세위원회로 집중시키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시기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세위원회는 중앙선거운동본부의 기획과 행사담당, 선전선동역량의 집중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인 선거대책본부'에서는 백기완 선거운동본부 문예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세위원회의 중앙문선대를 장르별 조직화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11월1일 문화공연을 준비하는 장르별 역량을 중심으로, 유세위원회의 핵심적인 선동역량이 될 문선대의 주력역량을 확보하는 것과 유세활동이 이루어지는 전국 각지역의 보조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이 현 문화예술인 선거대책본부의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 각지역에의 문예역량에 대한 파악과 이를 중앙의 동일적인 배치하에 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문에 대한 시급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 학생문예진영의 대선문예활동 준비상황**

학생문예진영은 전국학생예술기획단'을 건설하고 있다. '대선문예기획단'은 산하에 공연사업단과 전시사업단 체계를 가지면서, 학생문예진영의 통일적인 대선문예실천의 중추적인 집행단위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대선문예기획단'은 한측으로는 중앙선문의 문선대와의 결합이 요구되며, 다른 한측으로는 학생선문과의 결합이 요구된다.

현재 대선문예기획단의 대선시기 활동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교별 대중문예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문화제'가 기획되고 있다. 이의 가장 좋은 예가 서대노협의 공연배치, 그리고 고대와 서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제'가 될 것이다.

**3. 몇가지 극복해야 할 지점**

앞에서 현 민중문예진영이 어떻게 대선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체계와 사업을 중심으로 서술해 하였다. 이러한 준비상황에서, 그 문예운동진영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생문예진영의 많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대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문예운동진영에서는 지난 여름을 시작으로 한 좌파논쟁이 있었다. 이에는 많은 왜곡과 서로에 대한 불쾌지한 이해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학생문예운동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학우들의 주체적인 실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학생문예진영의 사업중도는 많은 무분에 있어서 학우들의 실천을 대상화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는 소위 운동권이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학생들의 잘못된 관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자기점검과 반성을 통해서만 이러한 잘못된 관성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대선문예실천에 있어, 학우들의 주체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보장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학생문예운동가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제'에 대한 통일적인 배치와 재조직화의 계획마련, 그리고 순회공연을 통한 각 지역별 역량의 재조직화 등이 하나의 예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중문화비평은 실제 선전역량으로서 대선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 단위의 대선문예활동은 하나의 중요한 영역을 조직된 실천으로 계획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화운동으로의 확대'라는 제언을 실천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계급투쟁의 지점이 문화와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문예운동진영의 새로운 실천을 요구하는 제언이었다. 이러한 제언은 바로 대선시기 선전선동활동의 중요한 위치로 계획 편재되어야 한다.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대중문화비평이라고 제기되었던 활동을 우리들은 대선문예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배치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선본의 선전위에 문예비평단위가 결합할 수 있는 조직적인 배치와 안정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 덕 균
〈전국학생예술인협 의장〉

▲전대협출범식때 민중운동 진영의 선전전 모습

## 선거본부의 '유세위원회'로 문예역량 집중

## 문화운동 통해 계급투쟁 범위 확대시켜야

**한국의 맑시즘 현실적용이 관건**

**강연초록 — 맑스주의의 위기인가 철학의 위기인가**

본고는 대학원 동학생회에서 실시한 학술제 중 27일 최종욱(국민대·철학)교수의 '맑스주의인가, 철학의 위기인가'강연을 요약한 것이다. 최종욱교수의 강연은 제2인터내셔널기 서구맑시즘의 변화와 요구, 허버마스를 중심으로한 포스트맑스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편집자註〉

현재 맑스주의의 위기를 파악하는 시각은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맑스주의 자체가 중말을 고한 상태에서 위기 또한 없다는 시각으로, 다시 두가지로 나뉜다. 극우파의 시각이 하나요, 소수이긴 하나 스탈린 주의로 대변되는 이론이 실천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맑스주의 자체에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극좌파의 시각이 다른 하나다.

그러나 자본주의 모순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맑스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여전히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19세기까지의 사회를 분석한 맑스를 우상화·절대화하여 20세기 현재의 문제까지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맑스로 돌아가자'고 보는 견해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의 이론자체에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며 이에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포스트맑스주의로 맑스의 위기는 이론자체에서 유래됨으로써 맑스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포스트 맑시즘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라클라우, 무페 사상을 중심으로 이병천교수가 제기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는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실천 자체를 이론에서 분리하자는 알튀세르식 위기론이다. 1920년대 수준으로 맑스주의 논쟁을 퇴화시킨 이병천교수 등의 철학적 지식의 한계, 맑스주의 이해의 천박성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체계화되지 않은 이론을 수용하여 맑스주의 자체를 해체하려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이 관점은 맑스주의 철학의 파괴이 아닌 이해 부족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해·환경 등 신사회운동에는 맑스가 파악하지 못한 점이 존재한다.

알튀세르가 전체 변혁운동 상에서 노동운동을 높이 평가한 것은 전적으로 그 당시 프랑스의 국제적 현실하에서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20C. 대중적 실력을 갖고 등장하는 공해, 환경문제 등의 신사회운동을 맑스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주도권을 노동운동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그의 전제는 현재 노동계급의 구조적 변화를 상기해 볼 때 맑스가 제기한 근본문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맑스의 기본적인 주장인 노동가치설에 자연·자원은 무한정 공급되지 않는다는 자연관은 오늘날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는 서구이론을 무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폭넓은 맑스주의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사회가 압고있는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이론은 물적 토대를 갖안하여 이론의 주장과 타당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변혁의 목적을 상정한 후 각기 이론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제2인터내셔널 시기의 서구 맑시즘의 뜨거 어 하자로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루카치이다. 루카치의 이론은 크게 문화론과 계급의식으로 양분된다. 문화론은 상품론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맑스에 비해 루카치는 상품물을 모티브로 맑스의 베버를 연결시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 합리성으로 인간을 물화시킨다고 보았다. 즉 자본주의의 합리성이 인간을 발달시킨다는 것으로 맑스를 칸트주의적 인식으로 비판·해석했다. 문화론에서 나타난 합리성비판은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하버마스까지 연결된다. 문화론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같이 물화되나 노동자만이 물화상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계급의식은 루카치의 맑스주의 해석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는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에서 나타난 무개한 민중의 예로 비판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부정된다. 여기서 마르쿠제 등이 출발하는 마르쿠제는 혁명의 테제를 포기하지 않는 요약되는데 하버마스는 이를 세가지로 분류한다. 자연과학의 기술적 관심, 인문과학의 실천적 관심, 사회과학의 해방적 관심으로 분류했으며 이중 해방적 관심은 인식과 실천을 포괄한 것으로 서 자연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의 상충 개념으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내재적으로 연결했다. 해방적 관심에 기초한 모델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소위 의식화적 테제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의사와 환자와의 구분, 존재하는 엘리티즘으로 비판을 받는다. 인간의 이성안에 해방적 관심이 내재해 왔고 정신분석학적 모델을 통해 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상정한 하버마스의 초기철학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유보되고 후기철학으로 이행하게 된다. 하버마스의 후기철학은 〈표 1〉과 같이 3분류되긴 하나 해방적 관심이 의사소통행위에 상징필으로서초기철학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즉 사적 유물론을 재구성함에 있어 경제적 카테고리를 문화적 카테고리로 전환시킨 것이다.

문제는 역사의 주체가 소멸되어 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변혁이 가능한가인데 이는 하버마스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합리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맑스주의의 인여가치설에 해당되는 의사소통행위의 합리성이란 인간이 선험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어 여러 사람의 합의하에 진리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합의론, 합의론으로서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합의론, 합의론으로서의 진리는 하버마스는 후기철학에서 혁명테제를 포기하고 합의론 통해 사회를 진화론적으로 개혁시키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의 결정적인 취약성은 생산관계에 있어서의 권력의 힘, 즉 폭력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로 환원된 것이다. 과연 계급갈등 문제가 언어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 모순이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구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버마스의 철학에서 서구 부르조와 민주주의의 발달을 의사소통의 합리성으로 파악한 점은 인정해야 할 점이나, 폭력의 문제, 또 현재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소통을 잠식하는 행위 등은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현시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상은 내부의 모순에서 출발되어야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맑스는 성경이 아닌 자본주의 모순 타파를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의 학자, 실천가로서 탐구해야 할 가치가 있고, 의무와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수정 記者〉

**〈표 1〉 의사소통 행위의 큰틀**

| 행 위 | 성공지향적 | 이해지향적 |
|---|---|---|
| 비사회적 (생산력) | 도구적행위 (자연과학) | — |
| 사회적 (생산관계) | 전략적행위 (행정, 경제, 사회과학) | 의사소통행위 |

# 하버마스, 합의 통한 사회 개혁 설정


**일본·미국 유학설명회**

**일본** 赤門會 日本語學校 Akamonkai Japanese Language School
■ 1400여명의 졸업생배출 ■ 우수 국·공·사립대학 높은 합격율
• 93년 4월학기 • 일어연수(장기 : 6개월이상, 단기 : 3개월내)
• 대학(원) 진학지도 • 우수학생 장학금지원·기숙사 완비
• 전문대 진학지도 • 국내 아카몬까이 동문회 후원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시스템공학, 정보처리, 관광경영, 자동차정비, 금형설계, 가구, 식품제조비, 인테리어, 요리사, 보석감정, 광고디자인, 미용, 외국어, 예체능계

**미국** 항공조종사 유학·미국 비행 학교
DBA Galvin International Academy
Galvin Flying Service, Inc. : 7149 Perimeter Road
Boeing Field, Seattle Washington 98108
• 60년의 역사와 전통 • 1만명이상 조종사 배출
• 미국 서북부지역 최대 비행학교 • 주지사 추천학교
• 93년 1월 학기 • 고등학생 해외유학 결격 사유 없는 자
• 영어연수 : Skagit Valley College, Edmonds Community College TOEFL 550점·미달자 조건부 입학가능
• 항공조종사 유학(FAA자격증 취득) : 국내 항공사 우선취업
• 항공기 정비사(주립전문대 졸업과 동시 FAA자격증 취득) '93년 상반기 국내외에서 취업가능

**설명회** ■ 일시 : 1992년 11월 7일(토)
미국조종사·영어연수 : 오전11～오후1시
일본유학·일어연수 : 오후 2 시～오후5시
■ 장소 : The Korea Herald 직영 코리아 헤럴드 외국어학원 강당 (5층) (신정오토션 옆지로입구 광고방향)
• 아까몬까이 일본어학교 교장과 미 비행학교 관계자 참석

서울 사무소 (등록접수)
A.M.K 海外教育團體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 (경기빌딩 404호)
전화 : (02)723-1723～5 팩스 : (02)723-1726
(2호선 을지로입구 광교방향 2분거리)

共同主催
The Korea Herald 직영 코리아 헤럴드 외국어학원
※협력자 출국전 일본어 무료 수강

유료연극 동의감죄요
성황리 극평 게재되는 15日 東醫 한마당 특강 사랑도인 최수운원리 출연
질병의 名 사실탐정 금오 그에게 불행수사 의뢰를 !!
東醫 한마당 지자 : 금오
강사 : 금오 도서출판 神農百草
금년 9.10月 부산공연 폐쇄자 국단 한우리의 '누가 의국 대통령인가'의 후예 !
• 일시 : 11/12(木)～29(日) (18.19.20은 공강일·학)
① 月～土(월일)과 11/15(日) PM 5 : 00～7 : 30 1부 감화 7 : 30～8 : 40 연극 8 : 40～10 : 10 2부 감화
② 11/22, 29(日) PM 1 : 00～2 : 30 1부 감화 2 : 30～3 : 40 연극 3 : 40～5 : 10 2부 감화
③ 15日은 PM 1 : 00～5 : 10까지 특별무료 공개감화, 공연이 있고 연이어 PM 6 : 00부터 참기감화가 있습니다.
• 장소 : 천대 문화센터 공연장 T 516-7114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현대백화점 지하2층)
• 수강료 : 하루 일인 5만원, 대학생 이하 미달 전15회 수강권 일만오천원 대학생(이하 상미달) (매일 주제별 강의 진행/선행수강 가능/프로그램 참조)
• 연극관람료 : 일인 1만원, 대학생(이하 동일권) (감화 수강생은 무료관람)
• 예약접수중(좌석무선 배정)
문의/접수 및 예약접수 문의처 (02)736-4644～5 FAX (02)730-7638(土,日휴무) (02)419-0387～8 FAX (02)424-5468(月,火휴무)

My Job My Life
**스튜어디스**
한국에서는 단 하나뿐인 관인 전문학원 !
★제1기 개강 : 11월 16일 설명회 : 11월 7일(3시)
★교육프로그램
영어, 일어, 상식, 항공업무론, 직장예절, 기내실습, WALKING/MAKE-UP.
★최신 교육시설
LAB실, 기내실습실, 일반강의실, 컴퓨터 퀴리 System, WALKING/MAKE-UP실.
★다년간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로 근무한 원장과 강사진
★스튜어디스 채용기준
• 인원 : 20～26세
• 신장 : 160cm 이상
• 시력 : 교정시력 1.0 이상
• 학력 :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한자 또는 졸업예정자
★KSA만의 장학제도
1. 우수한 직장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풍부함에도 물구하고, 선발교육을 받을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교육지망생에게 취업 후 공도록 도와드립니다.
2. 학원생 중 성적우수자를 선정, 취업시 우선 추천하며 1개월의 교육혜택을 부여합니다.
상담/문의
전화 : 518-8555～7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삼아빌딩 3.4.5FL
KOREA STEWARDESS ACADEMY

**대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뉴욕 F.I.T 패션연수**
세계 최고의 패션 대학원 미국, 뉴욕 F.I.T에서 실시하는 본 프로그램은 패션전공 대학생이 정규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연수 특별강좌 입니다.
· 수강과목 : Apparel (5학점)
· 시기및 기간 : 겨울방학 기간중 3주 1993년 1월3일(일) ～1월 23일(토)
· 패션 신업체 시찰
· 특전 : 수료증 및 취득학점 인정서 수여
· 신청마감일 : 1992.11월27일(금) (선착순 25명)
주최/국제패션센타 국제복장학원
문의/738-6093 734-7340

**시사영어학원** 영어 각 분야 734-2442
TOEFL 600 오전반 : 9 : 40—12 : 40 저녁반 : 6 : 40— 9 : 40
G R E 2000 오후반 : 2 : 00—4 : 00
GMAT 700 저녁반 : 7 : 00—9 : 00
M. A ENGLISH 대학원 진학종합반 저녁반 : 6 : 30—9 : 30
통역대학원입시반 새벽반 : 6 : 50—8 : 30 저녁반 : 5 : 00—8 : 00